

날짜 2022-11-20(D1)      본문 요1:1-14, HH.1.15.133-140  
번호 2334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설교 변일국 목사  
구분 주일예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찬송 찬9, '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'

‘천국의 열(*Heat in Heaven*)’

시작 주기도  
찬송 찬9, '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'  
기도 권영희 사모  
설교 요1:1-14, HH.1.15.133-140  
찬송 찬52, '거룩하신 나의 하나님'  
봉헌 권영희 사모  
광고 후보 참조  
헌금기도, 축도

<sup>10</sup>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<sup>11</sup>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(사58:10-11)

오, 주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,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..

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,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

오,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,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, <sup>1</sup>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<sup>2</sup>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<sup>3</sup>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

없느니라 <sup>4</sup>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<sup>5</sup>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... <sup>9</sup>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<sup>10</sup>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... <sup>14</sup>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(요 1:1-14)를 참조 본문으로, ‘천국과 지옥’ 책 글 번호 133번에서 140번 글, 제목은 ‘천국의 열(Heat in Heaven)’이었습니다.

천국의 열은 사랑이신 주님한테서 나오는 선, 곧 주님의 신적 선이라는 사실, 이 세상 해에서 열과 빛이 나오듯 천국의 해이신 주님한테서도 열과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적 선과 신적 진리라는 사실, 천국의 빛처럼 천국의 열 또한 각 천국마다, 그리고 천국 안 각 공동체들마다, 그리고 각 개별 천사들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, 지옥에도 열이 있지만 그 열은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, 천사들은 주님의 선으로 그 내면이 데워져 천국 열, 불 가운데 있다는 사실,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 영으로는 천국에, 육으로는 지상 자연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따로따로는 아니고, 사람도 동물도, 지상 만물도 다 그 열의 순서는 주님-천국-지상 순이라는, 즉 물질적 열도 그 근원은 영계, 곧 천국과 주님한테로 연결된다는 사실, 천사나 사람이나 둘 다 이해와 의지로 되어 있는데, 이해는 빛, 곧 신적 진리에, 의지는 열, 곧 신적 선에 상응한다는 사실, 이때 열은 의지의 생명이고, 빛은 이해의 생명이라는 사실, 이 세상 해의 열과 빛으로 만물이 생동, 성장하는 걸 볼 때 천국 해이신 주님의 열과 빛은 그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, 온 세상 만물의 창조가 바로 이 신적 진리 안에 담긴 신적 선, 곧 주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 등을 배웠습니다. 오, 주님, 제가 이 모든 사실을 기억, 부지런히 주님의 사랑, 선에 힘써 천국 열로 저 자신은 물론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

간절히 기도하는, 이 자리 모인,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,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,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!